창간정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800 호 The Seungni Shinmun 2020년 2월 1일 토요일

세계사적 관점에서 기와의 기원을 찾아서

그리스 레르나의 S자형 기와 문화가 동양에 전파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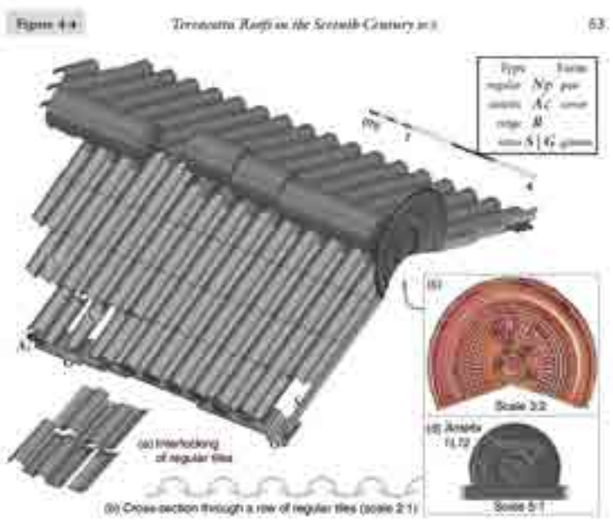
가장 오래된 S자형 기와가 기원전 1600년경 그리스 레르나(Lerna) 지방에서 발견

성경 인물로서 유명한 아브라함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가나안에 산 적이 있다. 그의 손자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여 이겼다고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후 이스라엘(본명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 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대신으로서 성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가족은 전부 이집트로 이사하여 고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게 되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고센 땅을 동서남북으로 각자의 지역을 나누어 부족을 이루고 살게 되었는데, 특히 이집트 고센의 다니스(Tanis: 소안)에서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아들 단이 하나의 지파를 이루면서 번성하였다. 이집트의 최북단에서 단지파가 강력한 부족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출애굽하여 시내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 4군 가운데 일명 북군으로서 북쪽을 담당한 것이다. 단지파는 고센 땅의 북부 이집트 다니스(Tanis) 즉 소안(Zoan)을 성읍으로 삼고 지중해 연안국과 교역을 하였는데, 이집트에 거주한 지 약 200년이 지나서 힉소스 왕조가 들어선 기원전 1674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에 양들과 기와를 실어 지중해 맞은편에 있는 그리스 연안으로 왕래하며 무역에 힘썼다.

단지파에 의해서 최초로 창안된 이집트에서 생산한 S자형 기와는 교역품목이 아니었다. 양들을 배에다 실어다가 그리스 연안(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하선한 후, 양들을 우리에 가두어 둘 때에 양들이 담장을 뛰어넘어 가지 못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S자형의 미끄럼판을 고안하여 담장 위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지중해풍의 스페니쉬 S자 기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남쪽에 있는 레르나(Lerna)에서 발굴된 담장 위에 얹어놓은 고대 S자형 기와는, 기원전 1600년경 크레타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활발한 해상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미케네 문명시대로 연대기를 확정할 수 있었으나, 그 기와의 제작자는 그리스 본토 사람이 아니고 양을 치는 어떤 외국의 상인이라고 고고학자들의 한결같은 결론이다. 그리고 고대 S자형 기와 담장 주변에 이집트에서 유입된 주거용 식기류와 숟가락 등이 함께 발견된다는 점이다.

미케네 말기 BC 1250년경에 레르나(Lerna)의 S자형 기와 담장은 버려지게 되는데, 이 시기는 도리안의 남하와 맞물려 단지파 민족이 삼손 사망(BC1248년) 직후 이스라엘의 소라 땅을 떠나 동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던 때와 일치한다.



BC 7세기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의 지붕(테라코타terracotta; 점토를 구운 것)
출처: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05420292

기원전 7세기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 복원도

헤라 신전에서 88올림픽 성화를 채화하는 장면

서주(西周)시대 기와 파편

BC 7세기 헤라신전 지붕에 레르나 S자형 기와 형식을 재현하다

헤라신전(Hera神殿, 그리스어: Ηραίον Ολυμπίας, 영어: Temple of Hera) 또는 헤라이온(영어: Heraion)은 그리스 올림피아에 위치한 고대 그리스의 신전이다. 올림포스 12신 중 한 명이자 여신인 헤라(제우스의 아내)를 모시기 위해 지어졌다. 기원전 590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찍이 기원전 4세기 초에 지진으로 파괴되면서 지금은 일부 유적만 남아 있다. 오늘날에는 올림픽 성화를 밝히는 곳으로 유명하다. - 위키백과

헤라신전의 지붕에 레르나(Lerna)의 S자형 기와(tile) 형태와 동일하게 암키와(tegula)와 수키와(imbrex)로 장식하되 수막새(Antefix)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서주(西周)시대와 한국의 고조선 시대에도 헤라신전의 지붕 기와 양식과 똑같은 건축물이 있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단지파 민족의 이동 과정에서 그리스 레르나(Lerna)의 S자형 기와(tile) 문화가 동양에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파 백성들이 알타이산맥 근교에서 기원전 13세기 중반에서 기원전 11세기 중반까지 약 2백 년간 우거하는 동안, 융족(戎族)으로 불리는 일부 단지파 사람들이 중국 내륙으로 진출하여 주(周)나라를 세웠다. 주나라의 시조가 고공단보(古公亶父)로서 본명이 단(亶)이요, 고조선의 시조 또한 단군(檀君)으로서 본명이 단(檀)인데, 히브리어 단(דָּן Dan; 심판자_창세기49:16)에서 유래되었다.* 박태선 기자

레르나(Lerna)에서 발굴된 담장 위에 얹어놓은 고대 S자형 기와
http://www.greeceathensaegeaninfo.com/p_argolida_ancient_lerna2.htm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76〉

"죽은 자의 영혼은 후손들의 핏속에 있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의 영이 무덤 속이나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으나 죽은 사람의 영은 죽은 사람의 마음이요, 죽은 사람의 마음은 죽은 사람의 피이므로 죽은 사람의 영은 살아 있는 사람의 핏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 몸은 엄마 아버지의 피로 만들어졌으니 엄마 아버지의 영도 들어있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 증조부의 영, 고조부의 영뿐만 아니라 모든 조상들의 영도 다 들어 있는 것이다.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죽은 사람의 피가 들어있으므로 죽은 사람의 영이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고로 한 사람의 이긴자가 나오게 되면 그 이긴자 몸속에 들어 있는 영들이 다 구원을 얻었다가 되는 것이요 부활했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죽은 자들이 무덤 가운데서 무론 대소하고 부활한다고 했던 것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치매예방 프로젝트6

사지마비 증상

사지는 나무로 말하면 가지와 같습니다.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뿌리가 되는 뇌와 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즉, 신경의 핵이 되는 뇌와 중추가 되는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사지마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있는 척추뼈 속에는 척수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척추뼈가 골절되거나 뼈가 어긋나면 척수가 손상을 받습니다. 뼈에는 이상 없지만 척수신경이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수신경이 손상되면 손상된 아랫부분이 마비되며, 이는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 원인으로 교통사고, 추락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병태생리는 1차 손상과 2차 손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손상은 사고 당시 척수에 직접 가해지는 힘에 의한 손상으로, 사고의 정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약한 손상이라도 환자의 척추에 이미 퇴행성질환 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척수손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2차 손상은 1차적 물리적 손상 후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손상된 척수신경 내에서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발생합니다. 그 증세는 마비의 정도에 따라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로 구분합니다. 완전마비는 손상부위 아랫부분의 운동 및 감각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증세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불완전마비는 손상부위 아랫부분의 운동 및 감각기능이 약간이라도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지마비는 몸통, 양쪽 팔, 양쪽 다리가 마비되는 현상으로, 척수의 경추 4번에서 경추 7번 부위에 손상을 입힐 때 나타납니다. 사지마비는 뇌성마비의 60%를 차지하며, 뇌성마비 분류 중 장애 유형별 분류가 아닌 장애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사지마비가 있는 뇌성마비 장애자들은 무정위 운동 증상을 보입니다. 사지마비로 인해 욕창, 폐렴이 많이 발생하고 신부전과 같은 합병증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어깨와 목은 힘줄, 혈관, 신경, 근육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러한 내부 조직들만 보면 목과 어깨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조직이 연계가 되어 있으므로 목에 문제가 있어도 목에 통증이 없이 팔이나 어깨가 아픈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50대에 목디스크 환자들이 많은 이유는 중년 이후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 때문입니다.

목 디스크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상이나 교통사고 등의 편타성 손상에 의한 것들이고, 두 번째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추간판의 수분이 감소하게 되면서 탄력성을 잃고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수핵이 탈출하게 되거나 돌출이 된 경우입니다. 최근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사용 등 평소 생활습관들이 변화되면서 목디스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디스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생활 원인들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한쪽으로만 물건을 드는 습관, 바르지 않은 자세로 앉아 있는 행동, 목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는 운동들을 한 경우, 체형에 맞지 않는 베개를 사용해서 밤새 어깨와 목 근육이 긴장이 되고 척수가 압박이 된 경우입니다.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과 바른자세로 손과 발이 제각각 멋진 구실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멋진 삶을 펼칠 수 있습니다.*

김주호 기자

고조선 수막새 제나라와 연나라로 전파

한국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은 약 3200년 전에 삼손 장수 사망 직후 이스라엘 소라 성읍에서 이주해온 단지파 민족이 세운 국가이고, 그들은 대동강 유역에 도착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천제단(天祭壇)을 쌓았고, 그 제단의 출입문 상단 지붕에 쌓은 레르나(Lerna)의 S자형 기와에 원형 와당을 사용하였는데, 그 원형 수막새(瓦當)에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를 새겨 넣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올드네게브 문자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사용된 지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태인조차도 자신들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어떤 문자를 사용했는지 몰랐으며, 또한 모세시대(the period of Moses)와 사사시대(the period of judges)에도 어떤 문자를 사용했는지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고대 히브리어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 때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금세기에 들어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 석판을 건네받은 곳이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 코스 중 하나인 시나이반도 시내산(Mt. Sinai)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미디안 땅)에 있는 라오즈산이 진짜 시내산(Mt. Sinai)임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라오즈산(Mt. Lawz 또는 Mt. Almond) 주변의 암각화에서 발견되는 문자를 일찍이 원시타무딕 문자라고 명명했지만 어느 민족이 사용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원시타무딕(Proto-Thamudic) 문자가 모세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이며 또한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네게브 사막(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살면서 사용한 원시가나안어(Proto-Canaanite)와 동일함을 알게 되었다.

이하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가 새겨진 『시내산 암각화』에 대해서는 본지 8면 기사를 참조하라.

레르나 S자형 기와를 장식한 고조선 천제단 출입문 상상도

12지파 와당

[Figure Ⅰ-1]은 12지파 와당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받은 기업(또는 장막)을 차지했지만 단지파만 장막에 거할 수 없게 되어 동북쪽으로 사라졌다고 하나의 점(點)으로 표현하고 있다.

[Figure Ⅰ-1]의 와당에 마치 컵을 뒤집어 놓은 모양의 U자형의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 11개가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배열되어 있다. U자형의 올드네게브 문자는 현대 히브리어 ב (behth)에 해당하며 기업(inheritance) 또는 장막(tent)을 의미한다. 그런데 12개의 점(點) 가운데 2시 방향에 점 하나는 U자형의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분배 받은 기업을 차지 못하였더라." 하는 성경 사사기 18장 1절의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 천제단 출입문 기왓골 끝에 12지파 와당

고조선 & 고구려 시대의 수막새(Antefix)

기와의 수막새(Antefix)는 서주(西周)에서 시작하여 중국 전역으로 전파되었다는 근거는 희박하다. 한반도 대동강 유역에 설립된 고조선 수도에서 꽃을 피웠던 수막새가 국경을 맞댄 소공석(召公奭)을 시조로 하는 연나라(北燕)로 전파되고 또한 황해 건너편 산둥반도에 자리잡은 제(齊)나라로 먼저 전파되어 중국 내륙 깊숙이 번져갔다.*